

민속씨름·해외축구·배구·핸드볼...

# 설 연휴 풍성한 스포츠 열전

손흥민·김민재 득점포 대기  
페퍼-GS칼텍스 23일 홈경기  
도시공사-삼척시청 내일 결전  
영암장사씨름대회 24일까지

21일부터 24일까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풍성한 스포츠 잔치가 국내외에서 벌어진다. 민속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을 비롯해 해외축구, 프로배구, 핸드볼 등 다채로운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펼쳐진다.

먼저 설 연휴에도 해외무대에서 활약하는 '코리아 리거' 들에게 시선이 쏠린다. 21일 밤 11시 30분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한 독일 분데스리가의 정우영(프라이부르크)과 이재성(마인츠)이 첫 주자로 나선다. 프라이부르크는 불프스부르크, 마인츠는 슈투트가르트와 2022-2023시즌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22일에는 김민재(나폴리)와 황희찬(울

버햄프턴)이 출격한다. 김민재는 오전 2시 살레르니타나와 이탈리아 세리에A 19라운드에서 팀의 리그 3연승에 도전하고, 황희찬은 밤 11시 맨체스터 시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1라운드에서 울 시즌 리그 1호 골을 노린다.

23일 오전 3시 30분에는 황인범-황의조 듀오가 뛰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가 아트로미토스와 수페르리가 엘라다 19라운드 일정을 소화한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손흥민(토트넘)이 '설연휴 축포'를 쏘아준다. 토트넘은 24일 오전 5시 풀럼과 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손흥민은 지난 4일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9경기 만에 리그 4호 골을 터트리며 골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손흥민이 풀럼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순위경쟁에 한창인 프로배구도 설 연휴 코트를 뜨겁게 달군다.

2022-2023 V리그 흥행을 주도하는 여자부 흥국생명명은 21일 김천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원정경기를 벌인다. 1위 현대건설을 추격 중인 흥국생명과 치열한 3위 싸움을

벌이는 한국도로공사 모두에게 무척 중요한 경기다.

국가대표 전·현 주장 김연경(흥국생명)과 박정아(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 결과도 관심을 끈다.

구단의 선수 기용 개입 사건 여파로 관순찬 전 감독이 물러나고, 이영수 감독대행의 사퇴와 사령탑으로 내정됐던 김기중 선명여고 감독의 감독직 고사 등 내홍을 겪는 흥국생명 선수들은 자비로 응원 도구를 마련하는 등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들 덕에 코트 위에서 힘을 쏟아내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23일 오후 4시 페퍼스타 디움에서 GS칼텍스와 홈경기를 갖는다. 여자부 4위 GS칼텍스는 3위 한국도로공사와 중위권 다툼을 벌이는 팀이기에 만만치 않은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흠 첫승'을 노리는 페퍼저축은행의 기세도 매섭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홈경기인 흥국생명전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어느 집수하나 쉽게 내주지 않았다. 나야 리드가 블로킹 3개 포함 32점, 이한비가 16점을 올렸다. 그러나 결정력이 아쉬웠다. 1세트 이하

비와 나야 리드가 확실하게 득점을 이어가며 앞섰지만 20점 이후 범실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2세트 박경현이 마무리하며 세트를 따냈다. 3세트 역시 듀스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보였으나 공격 화력에서 밀렸다.

긍정적인 부분은 오지영 합류 후 확실한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수비력과 함께 공격진들이 다양한 공격 활로를 만든다면 페퍼저축은행의 흠 첫승은 충분하다.

상위권 경쟁으로 흥미를 더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은 21일 오후 4시 삼척시청과 경기를 펼친다. 무패행진중인 광주도시공사가 삼척시청을 잡고 무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년 첫 씨름 대회인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는 19~24일 영암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 새롭게 창단된 기업팀 MG새마을금고씨름단은 이번 대회에서 첫선을 보이게 돼 남자 씨름에는 총 19개 팀 선수들이 참가한다. 그중에서도 영암군민속씨름단에서 새마을금고로 이적한 한라장사(105kg 이하) 오창록과 백두장사(140kg 이하) 장성우의 활약을 주목할 만하다.

태백급(80kg 이하)에선 '강자' 노범수(울주군청), 수원특례시청으로 이적한 허선형, 설날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문준석(수원특례시청) 등이 경쟁한다.

금강급(90kg 이하)은 임태혁(수원특례시청)이 대회 3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 등이 대항마로 나선다.

/조혜원 기자



19일 오후 4시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인천시청과의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 서아루가 슈팅을 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 광주도시공사 '5경기 무패행진'

인천시청에 33-23 완승

7골 서아루 MVP 선정

광주도시공사가 인천시청을 물리치고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5경기 무패행진을 내달렸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 부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시청을 33-23(17-15 16-8)으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2점을 확보하면서 4승 1무가 됐고 개막 5경기 무패행진을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 초반 인천시청을 상대로 몰아붙였다. 전반 3분 상대 이효진에게 선제골을 내준 광주도시공사는 곧바로

강경민의 어시스트를 받은 원선필이 득점에 성공하며 균형을 맞췄다. 이후 1분 간격으로 강경민, 김지현, 김금순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광주도시공사가 4-2 리드를 잡았다.

5-5동점 상황에서 서아루의 역전골로 리드를 되찾은 광주도시공사는 송혜수, 강경민, 원선필의 연이은 득점과 박조은의 선방으로 다시 4점차로 앞섰다. 막판에도 이어진 뒷심과 집중력으로 상대의 추격을 뿌리친 광주도시공사는 슈팅성공률 70.8%를 기록하며 17-15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의 공격력은 후반전에 폭발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송혜수의 득점으로 포문을 연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3분 정현희의 득점을 시작으로 강경민, 서아루의 연속 골에 힘입어 내리 5점을 따냈다. 이후 한 점씩

주고받는 공방을 펼쳤으나 광주도시공사의 실책과 골키퍼 박조은이 흔들리면서 4점을 내줬다. 4점차까지 좁혀진 상황에서 오세일 감독은 작전타임을 불렀고 이후 원선필과 강경민, 서아루, 이슬기의 득점과 손민지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32-23으로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1분 전에는 강경민의 던지기 득점이 나오면서 10골차 대승을 완성했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에이스 강경민이 12득점(공격성공률 85.71%)을 책임졌고 7득점(공격성공률 87.5%)을 기록한 서아루가 MVP로 선정됐다.

서아루는 "선수들이 다 같이 집중했고 오로지 승리를 따내고자 열심히 뛰었다"면서 "매 경기 나타내지지 않고 찬스가 나오면 1골이라도 더 넣고자 이 악물고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혜원 기자

## 프로배구 울스타전, 10분 만에 매진...사전행사 추가 판매

프로배구 도드람 V리그 울스타전 입장권이 예매 시작 10분 만에 매진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오후 1시부터 판매한 입장권이 10분 만에 6,338석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울스타전은 29일 여자부 흥국생명의 홈구장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다.

한편, 울스타전 전날인 28일에 열리는 '프리 울스타 게임'(Pre-All Star Game) 입장권도 전날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됐다.

이에 KOVO는 2층 좌석을 개방해 사전행사 입장권을 추가 판매하기로 했다.

2층 좌석은 총 2,711석으로 20일 오후 1시부터 통합 티켓 판매처(www.vticket.c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가격은 구역에 따라 7,000-8,000원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우수단체상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시상식

안형승 감독, 지도자상

김옥금, 우수선수상 수상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시상식에서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이 주축이 된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는 지난해 열린 4차례의 전국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4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독보적인 성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지난해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한국신기록 1개와 대회신기록 1개를 작성하며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 종목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은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양궁 국가대표인 김옥금은 불굴의 노장 투혼으로 전국장애인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비롯해 전국중별대회 5관왕, 경기도지사배 5관왕, 제1회 순천만배대회에서 2개의 한국신기록을 다시 쓰는 활약을 펼쳤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을 조련, 전국 최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오른쪽)이 지난 17일 열린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지도자상을 받았다.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제공

강 팀으로 이끈 안형승 감독은 지도상을 받았다.

안 감독은 "선수들과 소통하며 과학적인 맞춤형 훈련을 접목,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린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의 숨은 비결"이라며 "2022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김옥금과 김란수, 정진영이 앞으로 남은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잘 마무리해 오는 10월 아시안패러게임에서 광주를 빛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 운동하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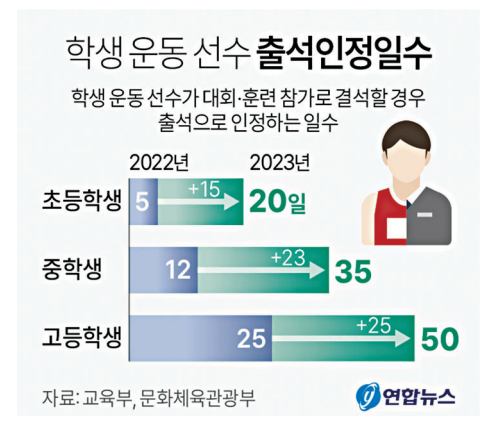
교육·문체부, 최대 25일 증가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난다면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헌신위원회'(이하 스포츠헌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교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올해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진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성을 겸비한 선수로 키 나가도록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별로 확충해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